

(주)알코 사회공헌 활동 -

달려라 달려! 나눔의 로봇!

올 여름 극장가는 '트랜스포머' 라는 로봇영화가 흥행몰이 중이다.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극장으로 이끄는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상상 속 '로봇' 을 구현했다는 점일 것. 하지만 현실 속에서 로봇은 이미 조금씩 성장, 지금 트랜스포머를 본 아이들이 우리가 마징가제트를 추억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영화가 아닌 실제의 멋진 로봇을 만들어 낼지도 모른다.

첨단 과학문명의 발전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 되는 21세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로봇은 국가경제를 견인할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 기계, 전자, 정보, 디자인 등 타 분야 기술과 융합한 지능로봇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단계로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발현의 장이 되는 로봇대회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주)알코 최계희 대표는 2003년 3월 과학기술부에 (사)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를 등록하고 매년 전국창작지능로봇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5회를 맞는 이 대회는 세계속에 한국을 빛낼 과학영재의 요람이 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매년 11개 지회에서 지역예선을 개최하고 있으며 8월엔 초·중·고등부 경기종목과 창작종목 본선대회를 열고 있다. 지역예선을 포함 800여 개 팀 2,000여 명의 선수와 코치가 참가하여 국내의 단일 로봇대회 중 가장 큰 대회로 인정받고 있다. 이 대회 본선에 우승한 팀은 장관상 시상 및 부상과 함께 매년 11월에 열리는 세계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인 월드로봇올림피아드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참가국 선수들과 국제적인 친선 도모와 교류 활동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대회에 드는 운영경비는 (주)알코에서 지원하며 직원들의 참여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7년 4월 20일 경남 통영시 사랑면 사랑도의 사랑초등학교 내지분교에서 본사 직원 20여 명과 내지분교 전교생 12명, 그리고 학부모, 선생님을 모시고 재매결연을 맺고 '섬 아이들과 함께하는 로봇 캠프' 를 열었다. 교육의 기회가 적은 도서벽지 학생들이 로봇을 조립하고 작동하면서 과학적 탐구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행사로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았다. 이날은 오전에 진행된 로봇캠프와, 로봇

관련기자재와 학용품을 기증할 수 있었던 재매결연식 그리고 학생·학부모·본사 직원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대형태극기를 만드는 이벤트로 진행됐다.

사랑도는 통영항에서 23km 떨어진 섬으로 (주)알코와 학교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해 5월 로봇을 초등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연구를 기획한 진주교대 문익식 교수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

로봇 구입비 절감을 위해 대구의 대한창작지능로봇협회에 협조를 요청하자 대한창작지능로봇대회 운영위원장이자 (주)알코 대표이사인 최계희 대표는 '교육사업을 하는 회사 경영방침과 맞는다' 며 레고마인드스톰 로봇 6세트를 기증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학생들에게 로봇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했다. 또한 금년 초 로봇을 활용한 창의력 교재를 개발하는 데 쓰도록 로봇알고리즘 연구회에 레고마인드스톰 신형 로봇 (LEGO MINDSTORMS NXT) 8세트와 부품을 기증하였고 영남대학교 전자계측학과에 연구용으로 로봇기자재를 기증했으며 강원도 정선 산골에도 교구와 기자재를 기증했다. 세계적인 어린이 창의성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계희 대표를 비롯한 (주)알코의 전 직원은 오늘도 창의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